

2021년도 재류 외국인에 대한 기초 조사 - 조사 개요 -

조사 목적 등

- 재류 외국인이 처한 상황 및 재류 외국인이 안고 있는 직업생활상, 일상생활상, 사회생활상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외국인에 관한 공생 정책 기획 및 입안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한 것.
 - 2020년도에 이어 2회차 실시.
 - 더욱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‘2021년도 재류 외국인에 대한 기초 조사에 관한 지식인 회의’를 개최하고 조사 항목 결정 및 조사 결과 정리 등에 대해 외국인에 관한 공생 정책에 정통한 지식인들의 전문성, 높은 식견, 넓은 시야를 도입하고 있다.
- ⇒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에 관한 공생 정책 기획·입안·실시를 진행함으로써 ‘외국인과의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한 로드맵’ 및 ‘외국 인재 수용·공생을 위한 종합적 대응책’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전 정부에 걸쳐 외국인과의 공생 사회 실현을 도모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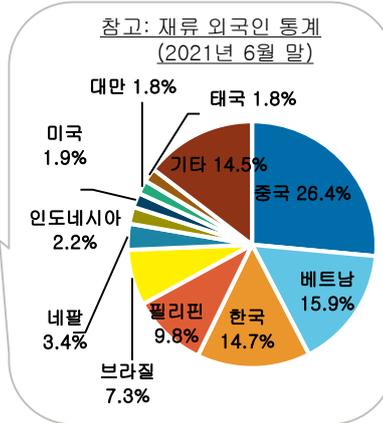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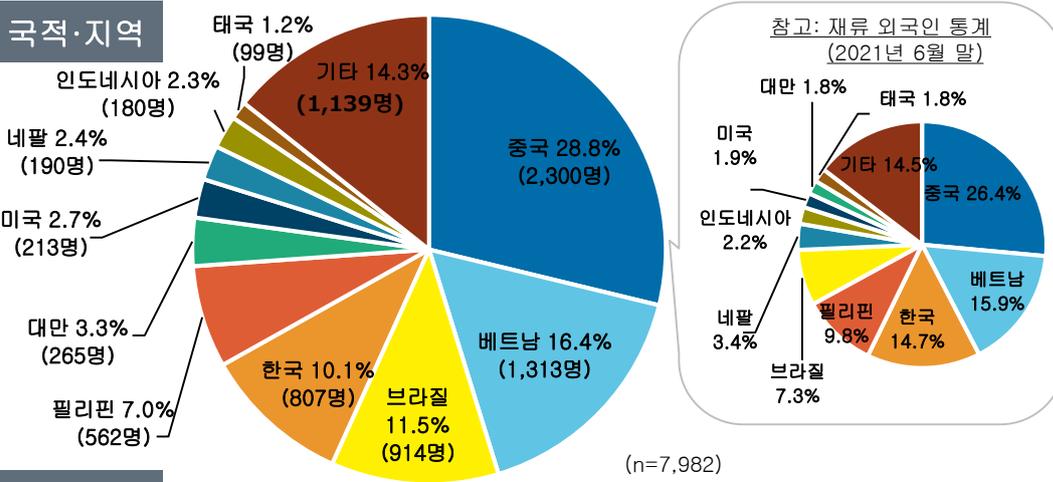
조사 개요

조사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18세 이상의 중장기 재류자 및 특별 영주자 총 40,000명 ※ 2022년 1월 17일 시점에서 최근 상륙 허가 연월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함. ※ 재류 외국인 통계(2021년 6월 말)를 바탕으로 결정한 국적·지역별 및 재류 자격별 표본 수에 근거하여 응답 대상자를 무작위 추출.
유효 응답 수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배부 수: 40,000건(중 미도착분: 1,572건) ■ 유효 응답 수: 7,982건 / 응답률 20.8%
조사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Web 조사(대상자에게 QR 코드가 삽입된 협력 의뢰장을 우편 발송하여 해당 코드를 읽어 들인 후, 인터넷상에서 설문 조사에 응답하는 형식) ■ 응답 화면은 8개 언어(읽는 법이 포함된 일본어, 영어, 중국어, 한국어, 포르투갈어, 베트남어, 필리핀어, 네팔어)로 대응.
조사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재류 외국인이 취업생활상, 일상생활상 및 사회생활상에서 안고 있는 이하 항목에 관한 문제 등을 조사. 일본어 학습, 정보 입수·상담 대응, 의료, 재해·비상시 대응(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), 주택, 육아·교육, 업무, 사회 보험 등 ■ 또한, 재류 외국인의 고독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‘2021년 사람들의 연대에 관한 기초 조사(내관 관방)’(조사 대상: 전국 만 16세 이상의 개인: 2만 명)와 동일한 설문을 마련했다.
조사 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022년 2월 18일 ~ 같은 해 3월 3일
유의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본 건 조사 결과는 설문 조사에 대해 얻은 응답을 그대로 집계·게재한 것으로 일부 결과에서는 응답 수가 한정되어 있어 그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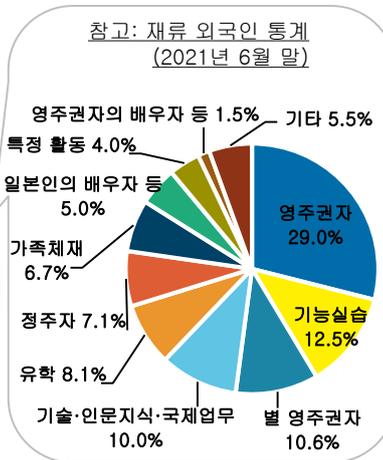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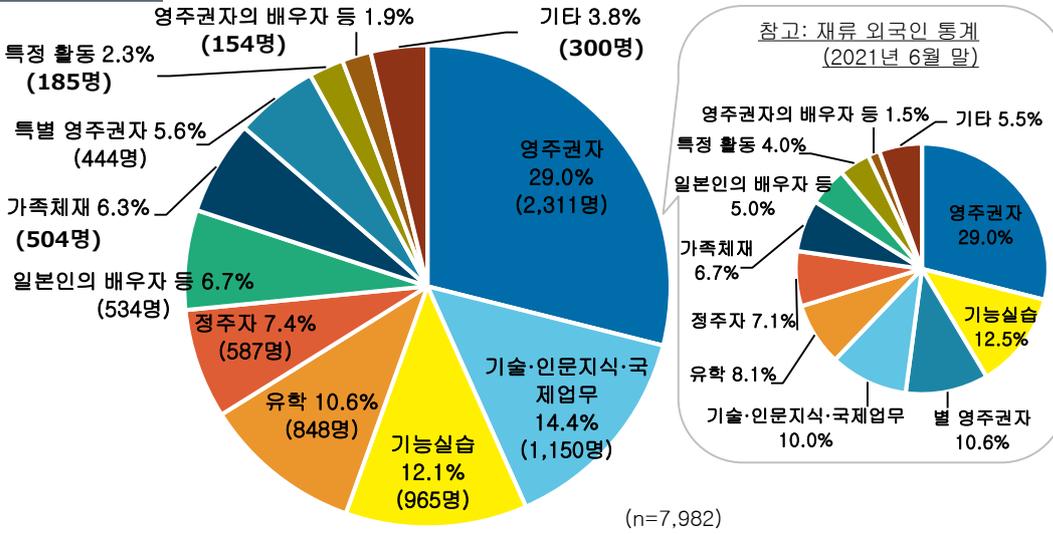
2021년도 재류 외국인에 대한 기초 조사 - 주요 결과 ①(응답자 속성·생활 환경 전반의 만족도) -

- 응답자의 국적·지역은 ‘중국’(28.8%), ‘베트남’(16.4%), ‘브라질’(11.5%) 순으로 많다.
- 응답자의 재류 자격은 ‘영주권자’(29.0%), ‘기술·인문지식·국제업무’(14.4%), ‘기능실습’(12.1%) 순으로 많다.
- 일본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(‘만족한다’+‘만족하는 편이다’)은 87.8%(2020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4.2포인트 증가). 또한 일본어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해당 비율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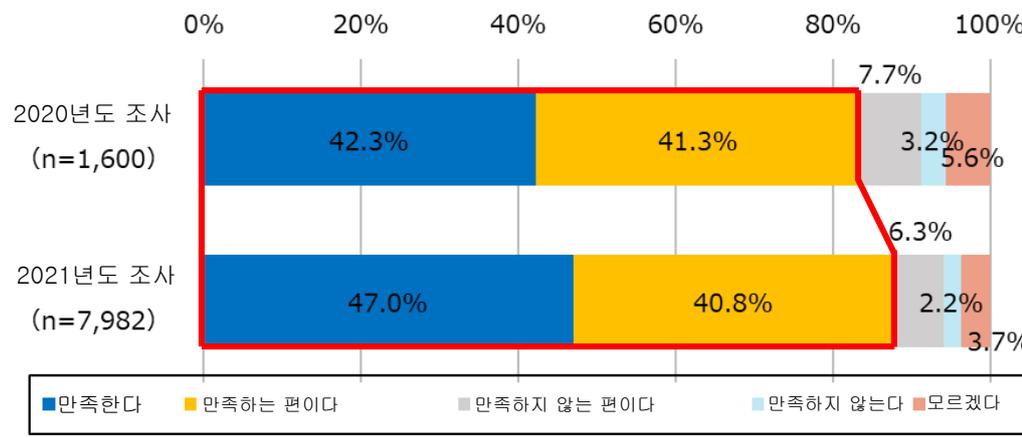
응답자의 속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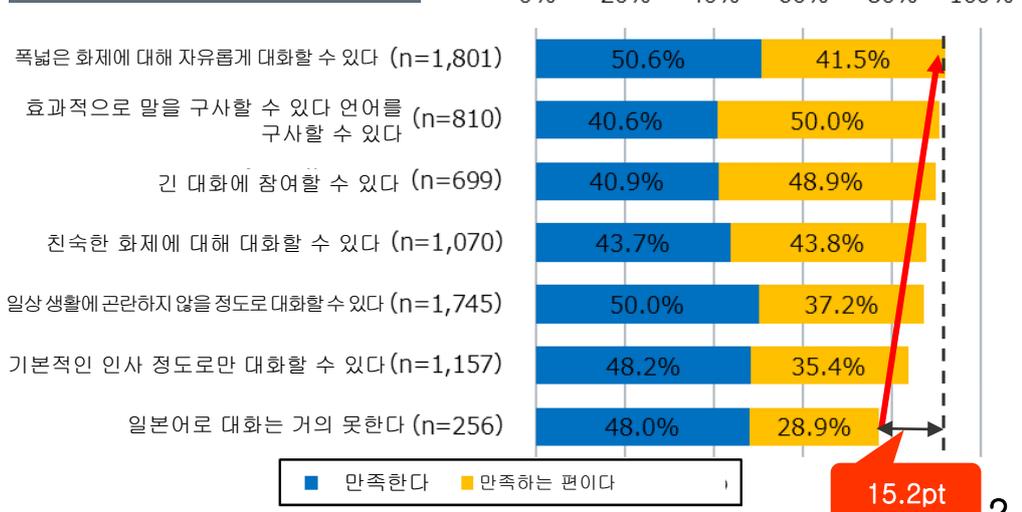
재류 자격



생활 환경 전반의 만족도



일본어 능력별(말하기·듣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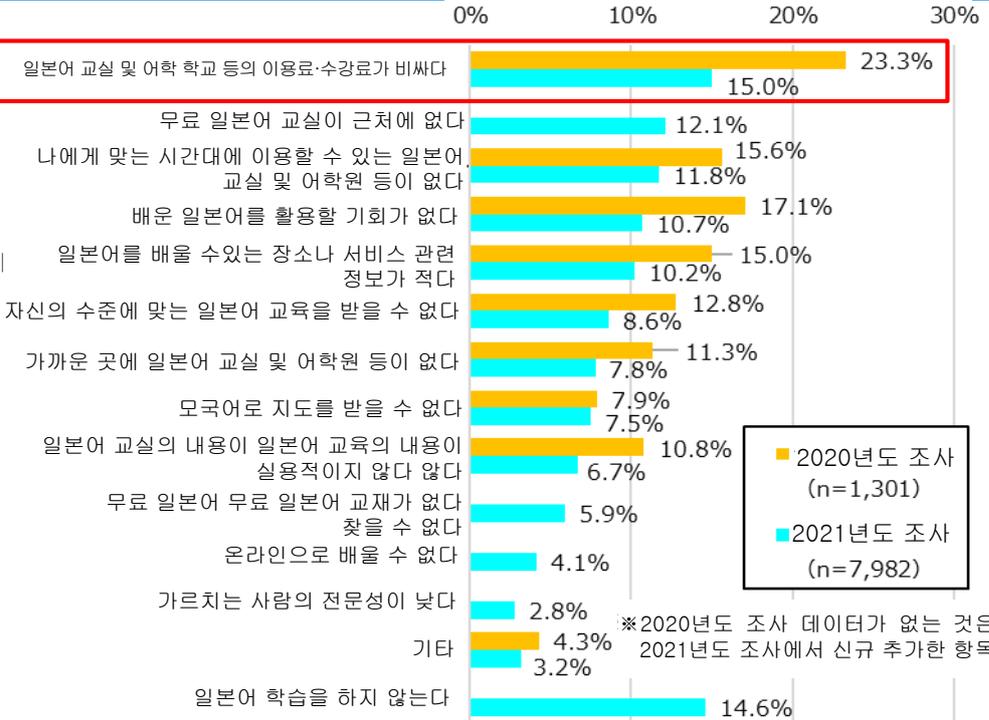


15.2p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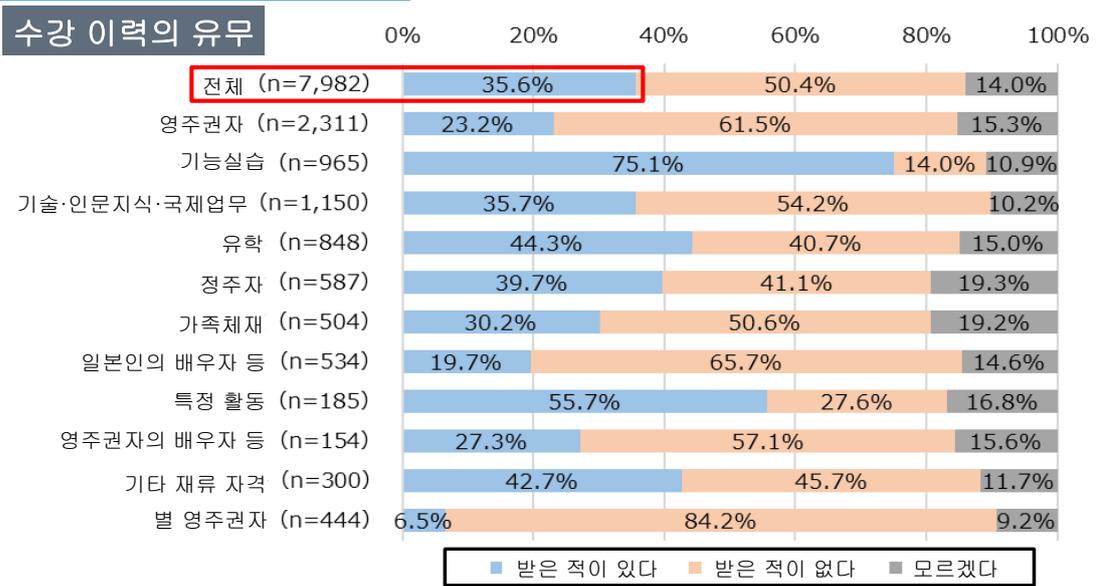
2021년도 재류 외국인에 대한 기초 조사 - 주요 결과 ②(일본어 학습·생활 오리엔테이션) -

- 일본어 학습에 관한 어려움은 '일본어 교실 및 어학 학교 등의 이용료·수강료가 비싸다'(15.0%)가 가장 많다(2020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8.3포인트 감소).
일본어 능력이 높지 않은 사람('일본어로 대화는 거의 못한다'·'기본적인 인사 정도로만 대화할 수 있다')으로 한정하면 '일본어 학습을 하지 않는다'가 가장 많으며 '무료 일본어 교실이 근처에 없다'의 비율도 전체와 비교하면 높다.
- 일본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에 관한 오리엔테이션(생활 오리엔테이션)을 '받은 적이 있다'는 전체의 35.6%.
- 일본 생활이 곤란하지 않기 위해서 알아 두면 좋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'받은 적이 있다'(57.1%), '연금·사회보험(56.9%), '의료·복지'(54.5%) 순으로 많다.

일본어 학습의 어려움



생활 오리엔테이션



일본어 능력별(발체)

구분	일본어로 대화는 거의 못한다 (n=256)	기본적인 인사 정도로만 대화할 수 있다(n=1,157)
1위	무료 일본어 교실이 근처에 없다(16.0%)	무료 일본어 교실이 근처에 없다(18.2%)
2위	나에게 맞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일본어 교실 및 어학원 등이 없다 (15.2%)	나에게 맞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일본어 교실 및 어학원 등이 없다(16.9%)
(참고)	일본어 학습을 하지 않는다(36.3%)	일본어 학습을 하지 않는다(23.2%)

일본 생활이 곤란하지 않기 위해서 알아 두면 좋다고 생각하는 정보 ※상위 5항목



2021년도 재류 외국인에 대한 기초 조사 - 주요 결과 ③(정보 입수·상담) -

- 정보 입수 및 상담 시에 이용하는 통신 수단(인터넷 관련)은 '유료 인터넷 환경(직접 프로바이더 계약)'이 88.6%로 가장 많으나, '무료 인터넷 환경(공공시설의 Wi-Fi 등)'에 한정된 경우도 5.7% 존재.
- 공적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입수처는 '일본 TV·라디오·신문·잡지'(47.9%)가 가장 많다.
- 공적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입수처에 관한 어려움은 '다언어로 제공되는 정보가 적다'(34.1%)가 가장 많다(2020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0.3포인트 증가).
- 공적 기관과 상담할 때의 어려움은 '어디에서 상담하면 되는지 모른다'(31.5%)가 가장 많다. 해당 응답은 '기능 실습' 및 '유학'에서 40%를 초과한다.

정보 입수

정보 입수 시 및 상담 시의 통신 수단(인터넷 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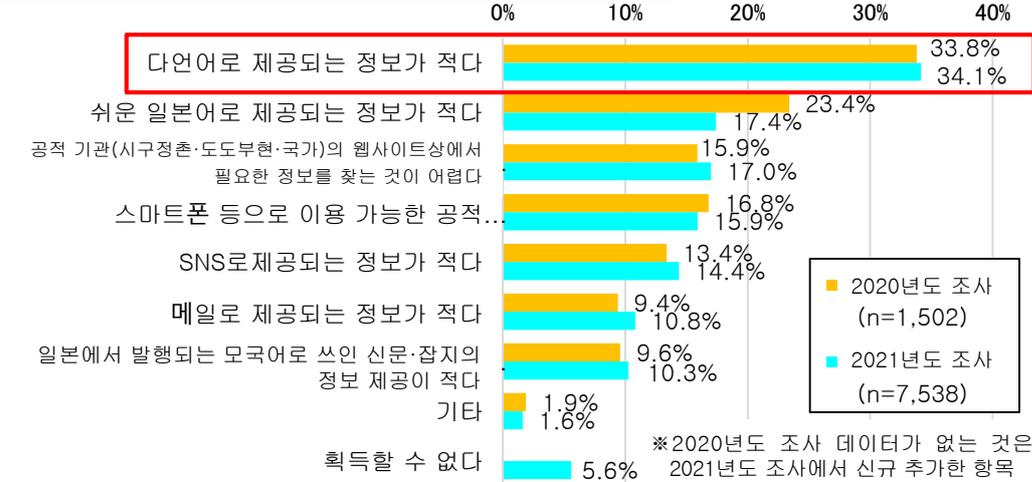
	유료 인터넷 환경 (직접 프로바이더 계약)	무료 인터넷 환경 (공공시설의 Wi-Fi 등)	유료 인터넷 환경 (인터넷 카페 등)	기타	이용하지 않는다
n=7,982	88.6%	12.0% (주)	3.3%	1.0%	3.5%

(주) '무료 인터넷 환경' 이외에 인터넷 환경이 없는 사람은 5.7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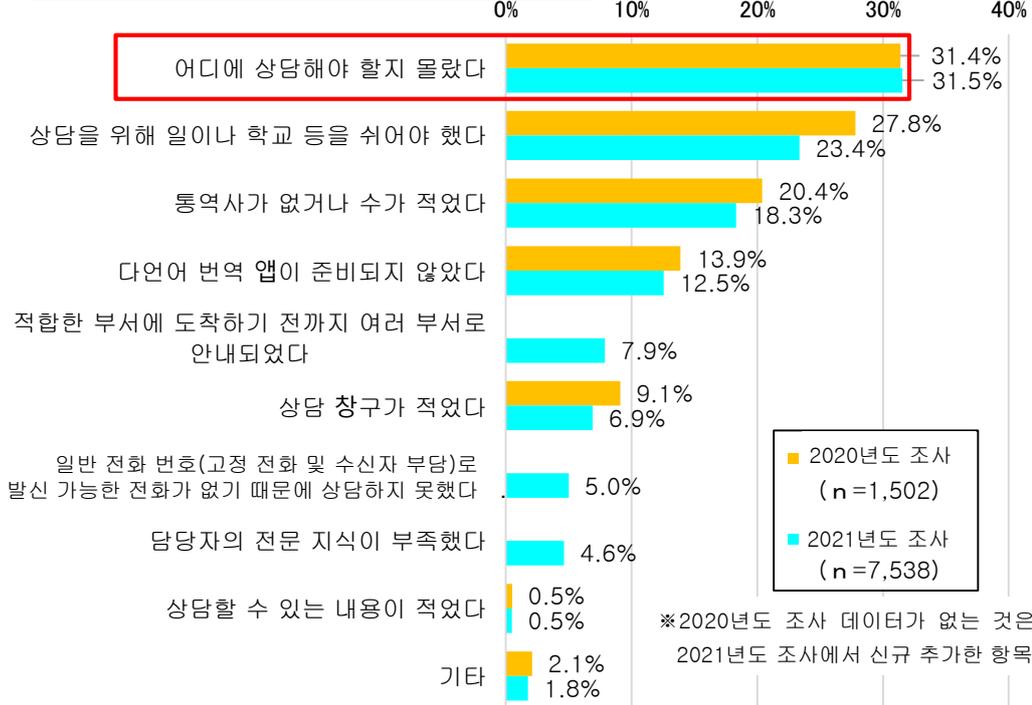
공적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입수처 ※상위 7항목



공적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 입수 시의 어려움



공적 기관과 상담할 때의 어려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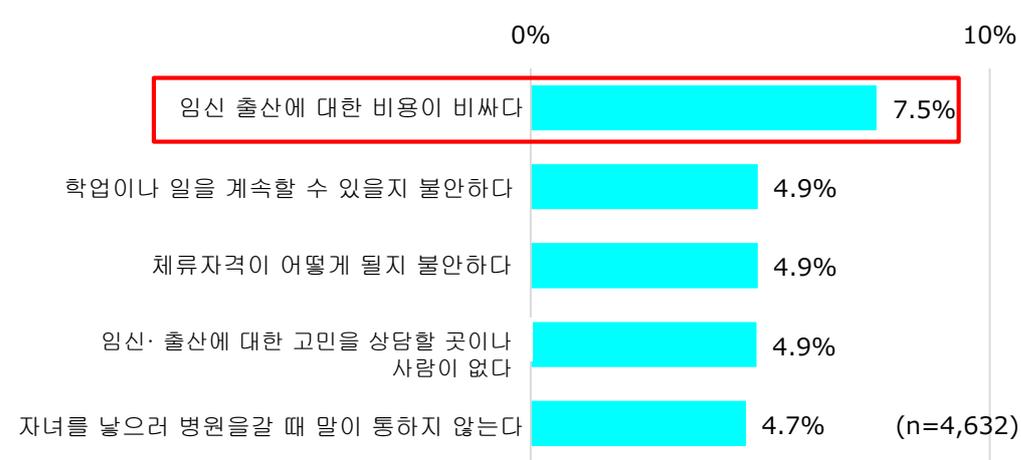
재류 자격별(발체)

순위	기능실습 (n=965) 전년도 조사 +2.3pt	유학 (n=848) 전년도 조사 +4.6pt
1위	어디에 상담해야 할지 몰랐다 (40.5%)	어디에 상담해야 할지 몰랐다 (40.9%)
2위	상담을 위해 일이나 학교 등을 쉬어야 했다 (20.0%)	상담을 위해 일이나 학교 등을 쉬어야 했다 (27.5%)
3위	통역사가 없거나 수가 적었다 (19.7%)	통역사가 없거나 수가 적었다 (21.9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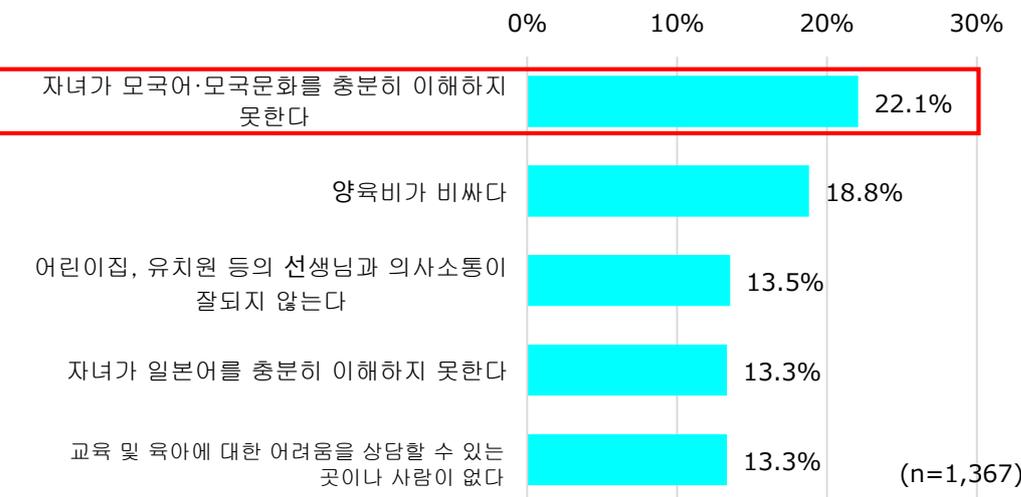
2021년도 재류 외국인에 대한 기초 조사 - 주요 결과 ④(라이프 스테이지·라이프 사이클 ①) -

- 임신·출산에 대한 어려움은 '임신 출산에 대한 비용이 비싸다'(7.5%)가 가장 많다.
- 육아에 대한 어려움은 '자녀가 모국어·모국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'(22.1%)가 가장 많다.
- 자녀의 취학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6세~15세의 자녀 중 '다니지 않은 이유'는 2.8%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'일본에 오래 머물 것이 아니라서'(43.1%)가 가장 많다. 또한 16세~18세의 자녀 중 '다니지 않는다'는 6.6%로, 그 이유는 (기타는 제외) '이미 취업을 해서'(18.5%)가 가장 많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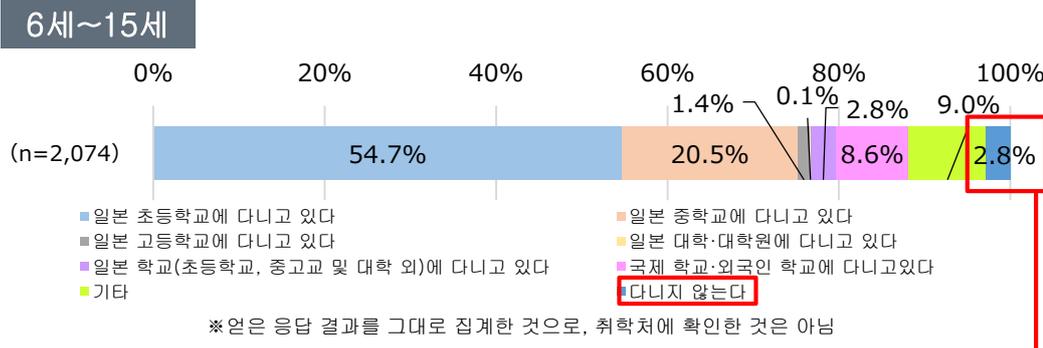
임신·출산의 어려움 ※상위 5항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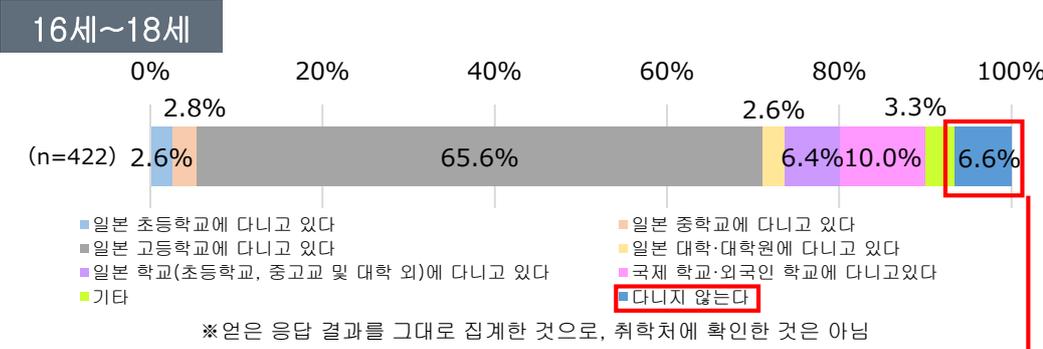
육아의 어려움 ※상위 5항목



자녀의 취학 상황



다닌다 이유 (n=58)	1위	일본에 오래 머물 것이 아니라서 (43.1%)
	2위	일본어를 몰라서 (19.0%)
	3위	수업을 따라갈 수 없어서 (8.6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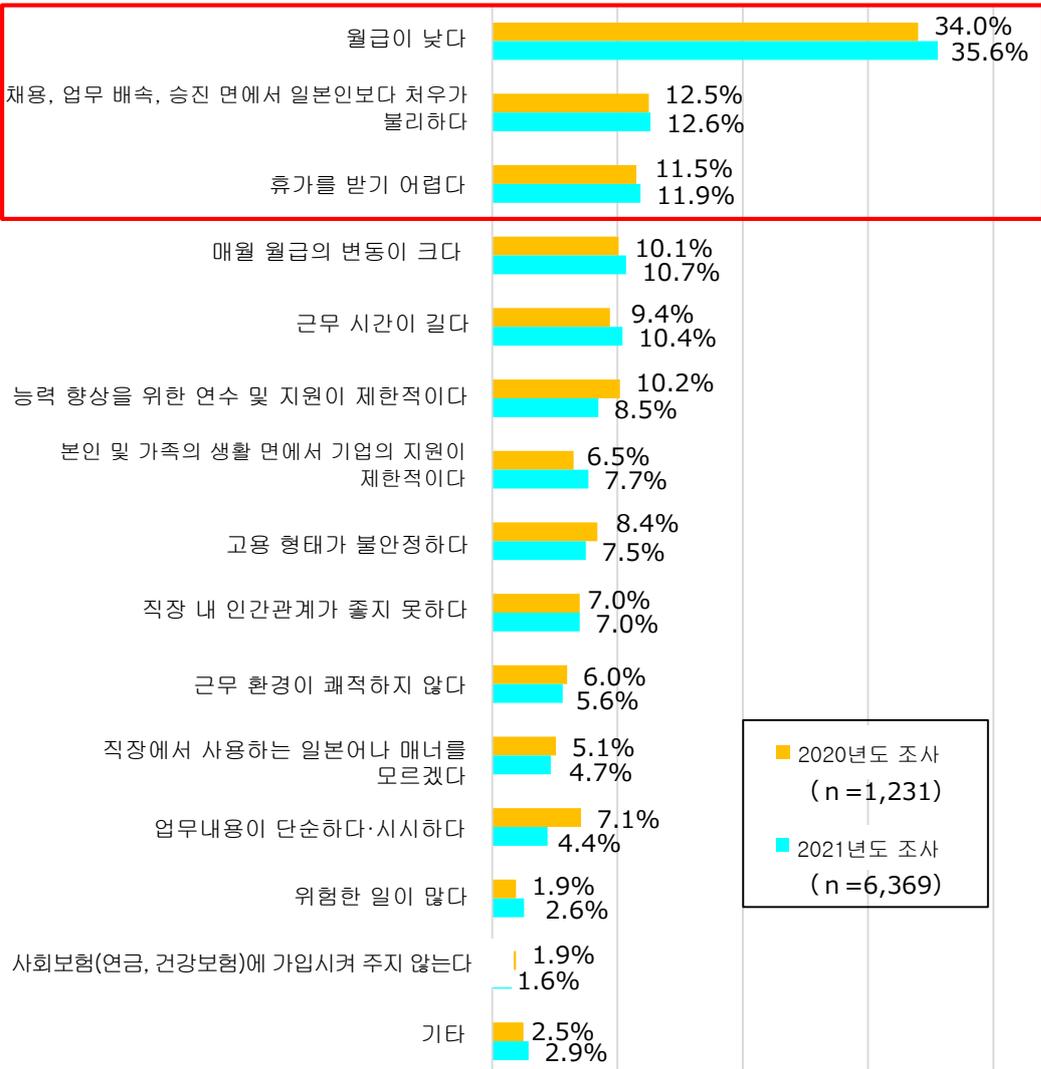
다닌다 이유 (n=27)	1위	이미 취업을 해서 (18.5%)
	2위	일본어를 몰라서 (14.8%)
	3위	모국의 학교와 생활 및 관습이 달라서 (11.1%)
		일본에 오래 머물 것이 아니라서 (11.1%)

■ 업무상 어려움은 ‘월급이 낮다’(35.6%), ‘채용, 업무 배속, 승진 면에서 일본인보다 처우가 불리하다’(12.6%), ‘휴가를 받기 어렵다’(11.9%) 순으로 많다(2020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모두 증가).

■ 연금 제도·개호 보험 제도의 어려움은 ‘제도의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’가 40%를 초과하여 가장 많다. 또한 수속 등의 상담에 관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도 일정 수 존재.

업무상 어려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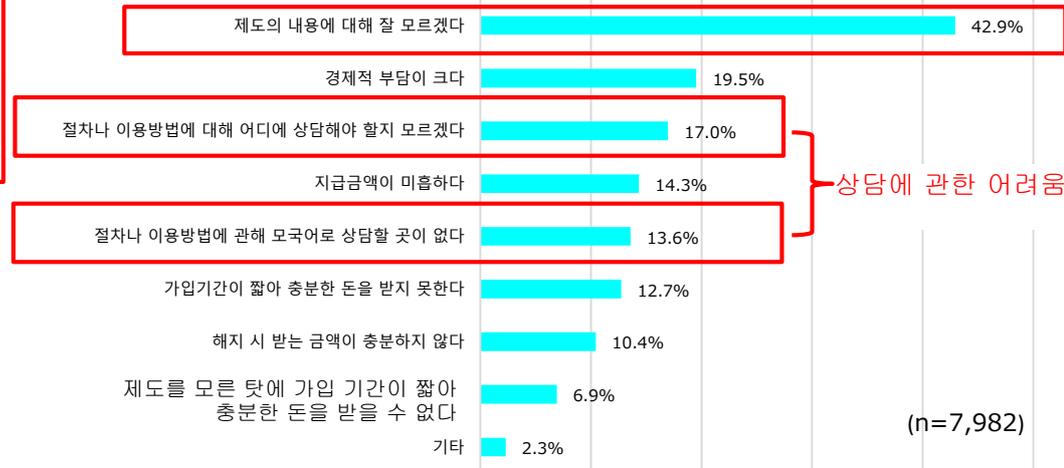
0% 10% 20% 30% 40%



연금 제도·개호 보험 제도의 어려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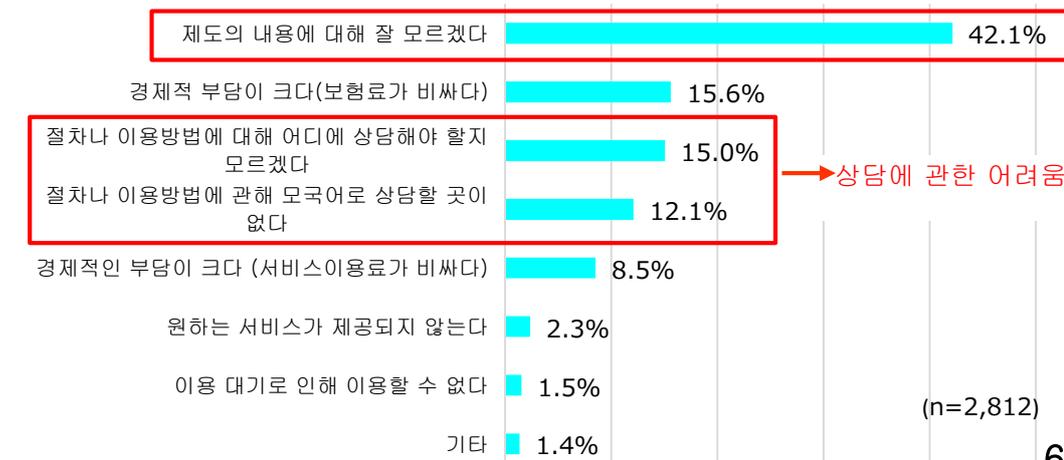
연금 제도

0% 10% 20% 30% 40% 50%



개호 보험 제도

0% 10% 20% 30% 40% 50%



- 병원에서 진찰받을 때의 어려움에서는 ‘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몰랐다’가 22.8%로 가장 많다. ‘유학’에 한해서 보면 해당 비율은 40%를 넘는다.
- 주거지를 찾을 때의 어려움은 ‘집세나 계약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었다’(19.2%), ‘국적 등을 이유로 입주를 거절당했다’(16.9%), ‘보증인을 찾지 못했다’(15.1%) 순으로 많다. 특히 ‘유학’ 및 ‘기술·인문지식·국제업무’에 대해서 보면 해당 항목은 모두 전체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.
-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의 어려움에서는 ‘출입국 제한 때문에 귀국할 수 없다’(36.5%) 및 ‘직업 또는 수업이 줄었다·사라졌다’(34.0%)의 비율이 높다.

병원에서 진찰 등을 받을 때의 어려움

주거지를 찾을 때의 어려움

	전체 (n=7,982)	유학 (n=848)	가족체재 (n=504)
1위	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몰랐다 (22.8%)	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몰랐다 (40.3%)	병원에서 증상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 (35.7%)
2위	병원에서 증상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 (21.8%)	병원에서 증상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(29.1%)	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몰랐다 (33.1%)
3위	병원 접수처에서 원활히 소통하지 못했다 (16.1%)	병원 접수처에서 원활히 소통하지 못했다 (20.5%)	병원 접수처에서 원활히 소통하지 못했다 (26.6%)

	전체 (n=7,982)	유학 (n=848)	기술·인문지식·국제업무 (n=1,150)
1위	집세나 계약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었다 (19.2%)	집세나 계약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었다(39.4%)	집세나 계약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었다 (32.7%)
2위	국적 등을 이유로 입주를 거절당했다 (16.9%)	보증인을 찾지 못했다 (32.5%)	국적 등을 이유로 입주를 거절당했다 (32.3%)
3위	보증인을 찾지 못했다 (15.1%)	국적 등을 이유로 입주를 거절당했다 (32.1%)	보증인을 찾지 못했다 (29.8%)

※ 특별한 경향을 보이는 재류 자격 결과를 받체
 ※ **적색 글자**는 전체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항목

※ 특별한 경향을 보이는 재류 자격 결과를 받체
 ※ **적색 글자**는 전체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항목

재해 시·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의 어려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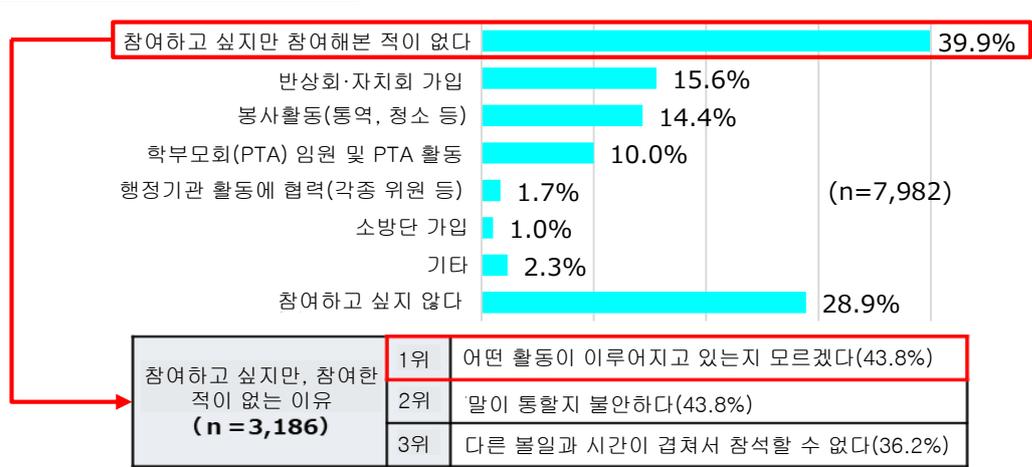
(n=7,982)

	재해 시의 어려움	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의 어려움		
		정보 입수	백신 접종	생활면
1위	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몰랐다 (12.2%)	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몰랐다 (18.3%)	행정기관 홈페이지나 예약 사이트를 읽을 수 없다 (4.5%)	출입국 제한 때문에 귀국할 수 없다(해외에 갈 수 없다) (36.5%)
2위	대피 장소를 몰랐다 (10.5%)	정보 획득까지 시간이 걸렸다 (10.1%)	예약 시 직원과 대화할 수 없다 (3.9%)	직업(수입) 또는 수업이 줄었다·사라졌다 (34.0%)
3위	경보·주의보 등 대피에 관한 정보가 다언어로 제공되지 않아서 몰랐다 (10.3%)	다언어로 제공되지 않아서 모르겠다 (10.0%)	집에 도착한 안내를 읽을 수 없다 (3.8%)	지출이 늘었다 (29.9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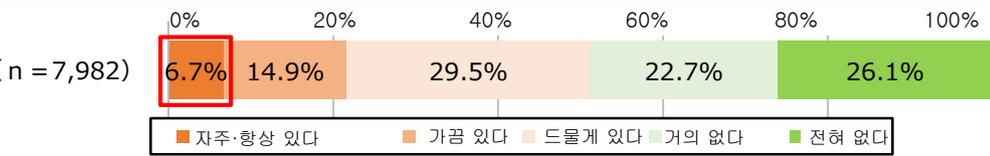
2021년도 재류 외국인에 대한 기초 조사 - 주요 결과 ⑦(사회 참여·차별·기타) -

- 사회 참여의 현상에서는 '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해본 적이 없다'가 가장 많다(39.9%). 그 이유로는 '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'가 60% 이상으로 가장 많다.
- 차별을 받은 상황에서는 '집을 구할 때'(20.6%)가, 차별 등에 관한 희망 사항에서는 '외국인과 일본인 간의 교류 기회 늘린다'(47.6%)가 가장 많다.
- 고독감이 '자주·항상 있다'는 6.7%(⇔ 2021년 사람들의 연대에 관한 기초 조사(내각 관방)(조사 대상: 전국 만 16세 이상의 개인: 2만 명)에서는 4.5%). '일본어로 대화는 거의 못한다'에 한해서 보면 14.8%로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.
- 지원에 관한 희망 사항으로는 '어디에 상담해야 하는지 알려준다'가 48.0%로 가장 많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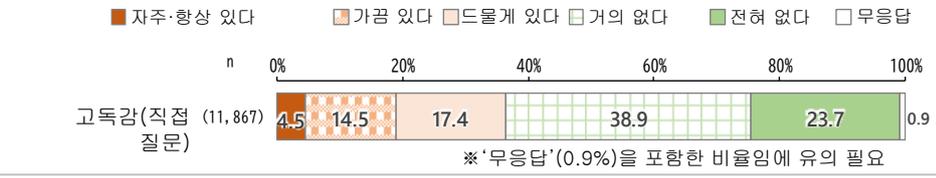
사회 참여의 현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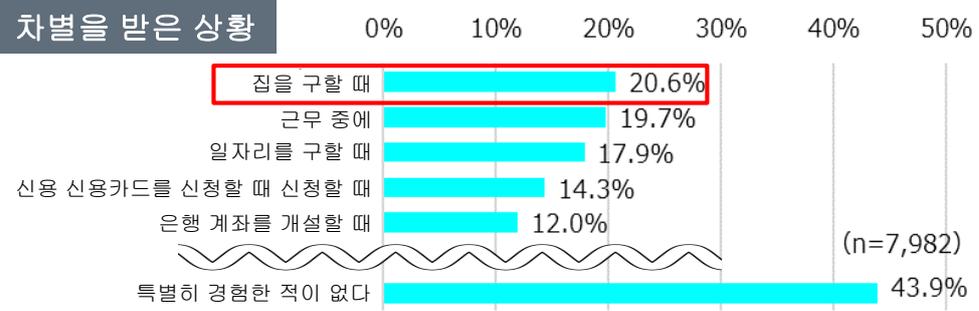
고독의 상황(당신은 어느 정도 고독하다고 느낍니까?)



참고: '2021년 사람들의 연대에 관한 기초 조사(내각 관방)'의 조사 결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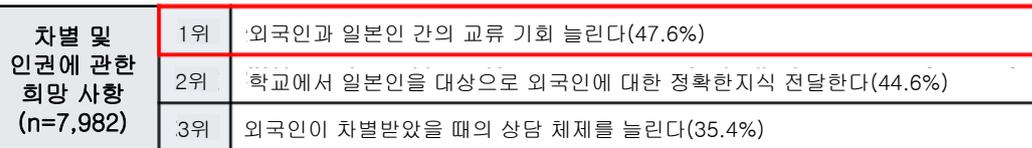
차별 등의 경험·희망 사항



일본어 능력별(발체)



차별 및 인권에 관한 희망 사항



지원에 관한 희망 사항 ※상위 5항목

